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8]

회화적 표현

김완일 목사 / 1994

오늘의 시대는 미디어 영상시대이다. 말하는 기술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말을 가지고 봉사하는 성경공부 인도자는 그 시대의 말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사용하면서 아름다움과 힘을 함께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인도자의 말은 전달하는 메시지가 참석자들의 손에 구체적으로 잡힐 만큼 영상화 되어져야 한다. 즉 극적인 표현과 전달이 요구된다. 가령 메시지가 믿음에 대한 내용일 때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났던 폭풍을 소재로 사용한다면 성경공부 인도자는 폭풍을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렁이는 물결, 쏟아지는 햇빛, 한가로이 고기잡는 어부들을 회화적으로 (그림을 보듯이) 묘사하면 참석자의 마음은 현장감있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성경보다 더 회화적인 언어로 쓰여진 책은 없다. 인도자는 성경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듯이 그림을 그려주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능력이 요구된다. 만약 성경본문 보다도 더 희미하고 생동감있게 표현하지 못하면 영상화에 익숙한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열하 1 : 1 - 4 에는 죽음에 임박한 다윗왕에 대한 통렬한 묘사가 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 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넵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지라 저가 왕을 봉양하여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 불어 동침하지 아니 하였더라』

성경은 인간과 인간의 죄에 대하여 결코 애매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사실적인 언어를 사용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말씀하셨다. 예를들어 이사야 1 : 2 - 6 을 보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메시지가 본문만큼도 회화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때 「재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메시지를 평면적으로 나열해서는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없다. 입체적인 방법으로, 즉 구조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회화적인 표현은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입체감과 구조성에 대응하여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를 회화적 (전체적) 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 출처 : 은누리신문